<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결과 해설

2004. 6. 5

통 일 부

1. 회담 개요

o 제9차 경추위가 2004.6.2～5 (3박 4일) 평양에서 개최

- 개성공단 건설 일정 등 7개항의 합의문 타결
- 전체회의(2회), 위원장 접촉, 위원접촉 등 실질협의 진행

*** 이번 경추위 기간 중 지난 '04.2.26 제4차 남북 해운협력실무접촉에서 타결된 해운 부속합의서를 서명·교환(6.3)**

2. 회담의 의의

□ 안보와 경제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계기 마련

o 이번 제9차 경추위와 같은 기간에 제2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6.3-4)을 개최, 남북관계의 균형 발전에 기여

- 평양 경추위에서는 경협 관련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설악산 장성급회담에서는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등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에 합의

□ 주요 경협사업 진전의 추동력 확보

o 개성공단 건설 관련 6월중 관리기관 구성, 9월 전력·통신공급 일정에 합의, 하반기 기업입주, 제품생산의 토대를 구축

- 북측은 전력·통신 공급 관련 상업적 방식을 재확인하고, 당국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개성공단실무협의회에서 논의

o 경의선, 동해선 도로 10월중 개통에 합의, 개성공단 개발사업 및 금강산 관광 활성화에 기여

- 철도는 금년 10월 가능한 구간에서 시험운행, 내년 개통에 합의, 한반도 등서 물류축 형성이 가시권에 진입

o 민간부문의 경협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계기 이를 해결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 선적전 검수, 북측 지역 체류시 통신 편의제공, 현지 기술지도 확대, 원산지 증명서 발급지연 문제 등 업계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한 북측의 인식 제고

□ 핵문제 해결 및 군사적 긴장완화 등 안정적 경협 추진여건 마련 촉구

o 전체회의 기조발언에서 우호적인 경협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 핵 문제 등 경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야 함을 강조

3. 주요 합의사항 해설

① 개성공단 건설

o 개성공단 건설은 6월말 부지조성공사 완공, 관리기관 구성 → 하반기 기업입주, 제품 생산

- 4.23 공사에 착수한 이래, 5월말 현재 30% 이상 공사 진척

o 전력·통신은 합의된 바에 따라 상업적 방식으로 시범단지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9월까지 적기 공급

- 시범단지 전력(15,000kW)은 배전방식, 본공단 전력(70,000kW)은 송전 방식으로 공급

- 통신은 문산-개성(전신전화국)-개성공단 통신센타간 전송로를 연결, 운용(시범단지 유선 100회선, 본 공단 유선 10,000회선 등)

* 전력, 통신 등 기반시설을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사업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투자하고 이를 운영,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아 원가를 회수하는 것을 의미

o 국내적으로도 시범단지 분양 관련 절차가 진행 중

- 5.18 분양공고, 5.24-27 분양신청접수, 6.5 업체선정, 6.14 선정 업체와의 계약 체결 예정

* 136개 기업이 입주를 신청

- 시범단지는 국내기업들의 수요, 공단개발시 블록별 개발이 효율적이라는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 최대 2만 8천평으로 분양면적 조정

② 남북 철도·도로 연결

o 남북간 도로는 금년 10월 동시개통, 철도는 금년 10월 시험 운행 실시, 내년말 개통 추진

- 남북은 철도·도로 공사를 착실히 추진 중

【철도·도로 연결공사 추진 현황】

< 2004.5월말 >

구분		우 리 측	북측
경의선	철도	○ 공사완료('02.12.31)	○ 12.5/15.3km 궤도부설 완료
	도로	○ 공사완료('03.10.31)	○ 노반공사 완료, 포장공사중
동해선	철도	○ 노반공사(18.5%) 진행중	○ 15.8/18.5km 궤도부설 완료
	도로	○ 노반공사(63%) 진행중	○ 노반공사 완료, 포장공사중

o 도로 개통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 추진에도 합의

*** 현재는 '03.1.27. 9.17 채택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에 의해 군사적 보장이 되고 있으나 본도로 통행 관련 새로운 합의서를 채택하여 도로 통행과정에서의 안전보장, 사고시 협력 등을 규정할 필요**

- 도로 개통시 개성공단 시범단지 조성, 금강산육로관광 등 경협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성, 편리성 제고

③ 남북 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

o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는 직교역 확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협의통로라는데는 남북간 인식이 접근

- 사무소 기능, 사무소 활동보장, 통신 등 사무소 개설,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빠른 시일내에 합의서를 채택하기로 합의

o 사무소가 개설될 경우 지금까지 제3국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방식의 고비용, 불편함 해소 → 교역활성화의 촉매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④ 경협 제도적 장치 확충

o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입법사항이 포함된 남북한 합의서에 대해 국회의 체결동의 추진

- 차량운행('02.12.6), 개성공단 통신, 통관, 검역('02.12.8), 해운('02.12.28), 해운부속('04.6.3),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03.10.12), 개성·금강산 출입·체류('04.1.29) 등 합의서

*** 현재 이들 합의서에 대해 법제처 사전심사 등 정부내 발효절차가 추진중**

o 부속합의서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

- 통신에 관한 부속합의서, 통관에 관한 부속합의서, 검역에 관한 부속합의서, 원산지확인에 관한 세부기준합의서, 차량운행부속합의서, 열차운행부속합의서, 출입체류공동위원회 구성운영합의서

- 청산결제 관련 지원창구 지정, 해운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등

o 남북해운합의서 후속조치

- 남북이 각각 7개 항구간 항로 개설 문재, 해사당국간 유선통신망(2회선) 설치·운영, 해양사고시 상호협력 방안 등 협의 필요

- 해운합의서가 발효되면 국적선의 직접운송이 가능,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운송 제도가 마련되어 남북교역의 활성화는 물론 남북한 해운항만분야 협력의 기반이 마련

⑤ 경협 애로사항 시정·해소

o 이번 회담에서 정부는 기업인들이 남북경협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제기, 당국이 이를 해결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 현지 기술지도 확대, 선적전 검수, 통신편의 등 요구

o 정부는 이러한 애로사항의 시정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업계의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시켜 나갈 방침

⑥ 쌀 차관 제공

o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식량지원을 공식 요구

- 우리측은 북측의 식량난(매년 100만톤 내외 부족)을 감안, 쌀 40만톤(예년수준)을 지원키로 합의

* 2000년 식량50만톤 (외국산쌀 30만톤 + 옥수수 20만톤), 2002년 국내산 쌀 40만톤, 2003년 국내산쌀 40만톤 제공

4. 향후 남북회담 일정

o 제2차 개성공단 실무협의회 : 6월중 (개성)

o 제10차 남북 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 6.30～7.2 (금강산)

o 제5차 해운실무접촉 : 7.13～15 (속초)

o 제15차 장관급회담 : 8.3～6 (서울)

o 경추위 제10차 회의 : 8.31～9.3 (서울)

<붙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합의문

< 붙임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4년 6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간 경제협력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구역안의 시범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04년 말까지 제품생산에 들어가도록 하며, 2004년 6월까지 개성공산 관리기관을 구성·운영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이와 함께 쌍방은 전력, 문산-개성(전신전화국)-개성공단 통신센타간 구성되는 광케이블 전송로를 이용한 통신 등을 9월부터 상업적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1단계 100만평 개발공사가 원만하게 진전되는데 따라 다음 구역 개발에 대한 내부 준비를 진행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개통을 2005년에 동시에 진행하며, 이에 앞서 이미 합의한 가능한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열차 시험운행을 2004년 10월경에 진행하기로 한다.

   이와 함께 쌍방은 경의선·동해선 에서 연결도로를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는 데 따라 2004년 10월까지 개통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채택·발효시키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남북간에 합의하였거나 가서명된 합의서들을 조속히 발효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이와 관련한 부속합의서 마련 등 후속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이미 서명·교환한 남북해운합의서(부속합의서 포함)를 빠른 시일 내에 발효시키며, 쌍방 선박들의 영해통과 시기와 항행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남북해운실무접촉에서 토의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민간급 경제협력이 활성회되도록 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6. 남측은 동포해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북측에 쌀 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한다.

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8월31일부터 9월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는 6월중 개성에서,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금강산에서, 제5차 해운실무접촉은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속초에서 각각 진행하며, 그 밖의 필요한 실무협의회 또는 실무접촉들은 차후 일정을 정하여 개최하기로 한다.

2004년 6월 5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차관 김광림	**건설건재공업성 부상 최영건**